엔터테인먼트

Entertainment

송대관 드라마 데뷔

가수 송대관이 KBS 2TV '공주가 돌아왔다'를 통해 드라마에 데뷔한다.

송대관은 극 중 봉희(탁재훈 분)의 스승이자, 음악계의 숨은 전설인 '용선생' 역을 맡아 극의 중반부부터 주요 배역으로 등장한다.

용선생은 철부지 남편에서 이혼남으로 전락해버린 봉희가 가족에게 부끄럽지 않은 가장이 되고자 노력하는 과정을 돕는 트로트 스승이다.

봉희는 용선생을 만나 삼고초려 끝에 제자로 들어가게 되고, 그 밑에서 감칠맛 나는 창법 구사 등 다양한 트로트 기술을 배우면서 진정한 남자로 다시 태어나는 법을 익힌다.

'선덕여왕' 문노에선 정의의 사도 **정호빈** '태양을 삼켜라' 백실장선 악인의 상징

선과 악 넘나드는 두 얼굴의 사나이

"'문노'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 같아요. 제가 봐도 멋집니다. (웃음)"

최근 MBC TV '선덕여왕'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문노'다. '화랑의 전설'로 불리는 문노는 드라마 초반에 등장했다가 사라진 뒤, 얼마 전 다시 등장해 덕만 공주(이요원 분)와 미실(고현정) 모두를 긴장시키고 있다.

자연히 문노 역의 정호빈(40)에 대한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을 실감하고, 놀라고 있어요. 축하 전화도 많이 받고 있고, 격려도 많이 해주시네요. 운 좋게 좋은 역을 맡았습니다."

문노는 미실과 대적할 운명을 지닌 갓난아기 덕만이 미실의 계략을 피해 무사히 중국으로 피신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인물이자, 미실이 버린 아들 비담을 자신의 제자로 키운 스승이다.

지덕체를 고루 갖춘 그는 특히 무공이 빼어나 당할 자가 없다. 공중으로 뛰어올라 쉴새 없이 발차기를 하는 모습이 압권.

"무예를 뽐내기 힘듭니다.(웃음) 아무래도 시청자들이 보시기에 재미있으니까 문노의 무예 시범이 종종 등장하는데 연기하면서 많이 다쳤습니다. 타박상 정도는 아프다고 말도 못해요."

그런 문노는 '정의의 상징'으로도 비친다. 백성을 가엾게 여기고, 신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그는 늘 바른길을 찾으려 한다.

> "문노는 희망 주는 존재
> 제가 봐도 멋집니다
> 백실장도 색다른 매력
> 연기하는게 즐겁습니다"

"정의의 상징은 너무 거창한 것 같고, 그저 서민들 힘들 때 힘이 돼주고 도움이 되는 인물이에요. 문노가 왜 이렇게 멋지게 그려질까 생각해봤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문노 같은 인물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려지는 것 같아요. 시청자들도 힘든 시기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것들을 문노가 대신 이뤄주고 풀어주기를 기대하는 것 같아요."

사실 문노는 드라마에 돌아오지 못할 뻔했다.

"초반 1~2회만 출연하는 줄 알았어요. 극 전개상 중요한 역이지만 드라마에 힘을 실어주고 빠지는 역이었거든요. 그런데 문노에 대한 반응이 좋으니까 지난달에 다시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도 잠깐 나오는 줄 알았는데 꽤 비중이 있네요.(웃음) 하지만 문노도 퇴장해야 할 때가 있지 않겠어요? 조만간 큰 반전이 올 때 그 상황 속에서 문노도 퇴장하지 않을까 싶어요."

재미있는 것은 정호빈이 현재 두 드라마에 겹치기 출연 중인데, 두 배역이 동일 인물임을 모르는 시청자들이 많다는 점이다. 그는 SBS '태양을 삼켜라'에서는 장민호(전광렬)를 보필하는 백실장으로 출연 중이다. 이번에는 현대극인 데다 악역이다.

"다행이죠. 두 인물이 같은 배우라는 사실을 모르는 게 저로서는 더 좋은 거잖아요. 문노의 생명이 길어지면서 본의 아니게 겹치기 출연을 하게 됐는데, 동시에 180도 다른 역할을 연기하는 것도 흔치 않은 기회 같아요."

그는 2003년 '올인'을 시작으로 '부활', '주몽', '히트', '꽃보다 남자' 등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고, '무림여대생', '무영검' 등의 영화에도 출연했다. 그러나 이름을 알리기에는 늘 뭔가 부족했는데, 이번에 문노 역을 맡으며 비로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도인 같은 문노 분장이 무척 잘 어울린다는 평가도 덤으로 얻고 있다.

"'선덕여왕' 촬영장에서 느끼는 기운이 아주 좋고, 연기하는 게 즐겁습니다. 이 나이에 그런 멋진 역할을 해볼 수 있어서 행복하고요. 잘 어울린다니 기분 좋습니다."

/연합뉴스

일일극 '다함께 차차차' 박 한 별

"이제야 내 몸에 맞는 옷 입은 느낌 속 확 트이고 연기 재미에 빠졌어요"

배우는 자신의 실제 성격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연기한다. 하지만 배우의 실제 캐릭터와 이미지 사이의 오차 폭이 작을수록 배우나, 보는 사람이나 편해지는 것은 사실이다.

배우 박한별(25)은 지금껏 그 오차가 아주 컸던 경우다. 2003년 영화 '여고괴담3-여우계단'을 통해 데뷔한 이래 그는 줄곧 나이보다 성숙하며, 청순하고 여성스러운 역할을 맡아왔다. 그런 그가 KBS 1TV 일일극 '다함께 차차차'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진경이 캐릭터가 마음에 쏙 들었어요. 20대 초반 발랄한 아가씨 캐릭터가 처음인 데다, 진경이는 내숭이 전혀 없고 할 말은 다 하고 사는 애잖아요. 모처럼 속이 확 트이는 것 같고, 연기하는 것이 아주 재미있어요."

진경이는 집안의 사고뭉치다.

"남들 눈에는 사고뭉치로 보이지만 진경이는 정말 괜찮은 애예요. 주변 인물들이 다 너무 바람직해서 상대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 보일 뿐 진경이도 가족을 끔찍하게 아끼고, 성심이 바른 아이입니다. 우리 드라마에서 제일 현실적인 인물이 아닐까 싶어요.(웃음)"

그는 전작들의 캐릭터 얘기가 나오자 금세 주눅이 든 표정이 됐다. 드라마 '요조숙녀', '푸른 물고기', '한강수타령', '환상의 커플'에서의 모습을 돌아보면 부끄럽다는 것이다.

"그동안은 정말 너무 답답했어요. 지난 6년간 늘 차분하고, 예쁘며,' 성숙한 캐릭터만을 연기했는데 정말 어색하고 괴로웠어요. 실제 제 모습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질감도 많이 느꼈고, 아무리 연기라고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참 많았어요."

그는 "물론 연기자가 자신의 실제 캐릭터와 비슷한 역할만을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경험과 연륜이 없는 상태에서 전혀 다른 캐릭터를 연기하다 보니 너무 어렵고 괴로웠다"며 "연기 못 한다는 욕도 많이 먹었는데, 내 몸에 맞는 캐릭터였더라면 욕을 좀 덜 먹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동안 출연 미팅이 있을 때마다 '이 역은 나와 안 맞는다'는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다들 안 들어주셨죠. 계속 똑같은 이미지의 역이 들 어와서 결국 2년은 쉬었습니다. 쉬는 동안 '연기에 대한 열의가 없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오히려 연기를 제대로 하고 싶어서 쉬었던 것이죠."

박한별은 "아직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내가 편하게, 공감하며 연기할 수 있는 캐릭터들을 만나고 싶다"며 "그래서 캐릭터를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며 가식 없는 모습을 보여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